

2. 산업과 금융

1) 산업

(1) 산업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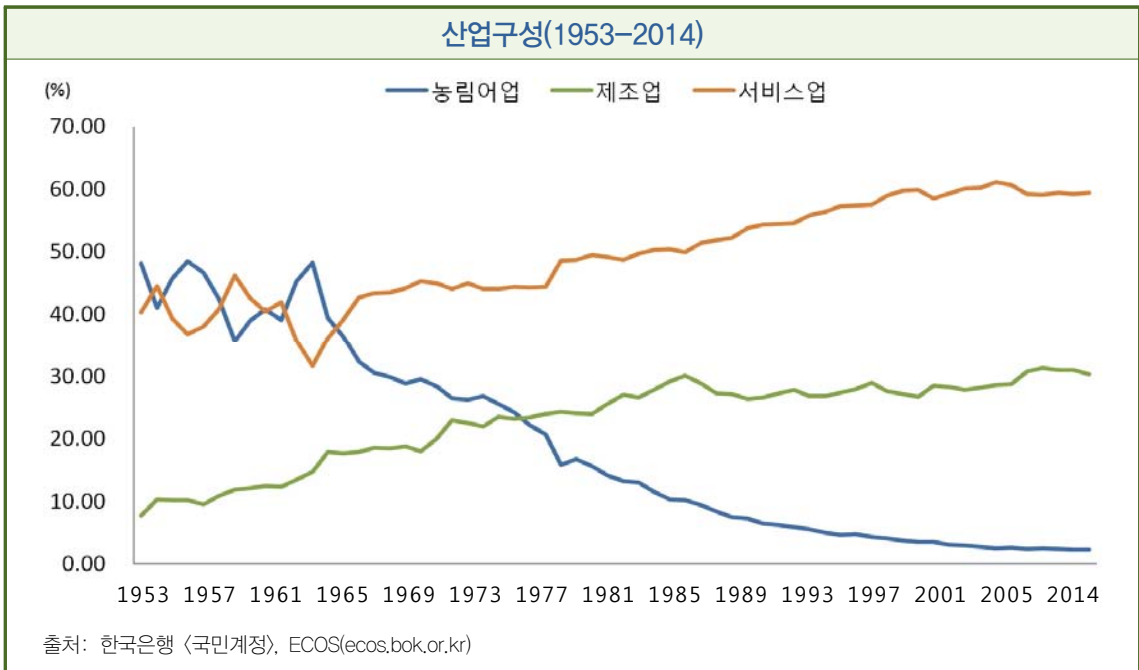
1953년에는 농림어업이 48.2%로 한국 산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해 제조업은 7.8%에 불과했으며 서비스업은 40.3%였다.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함께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농림어업 비중은 1969년에 30% 밑으로 떨어지고 1979년에는 20.7%로 낮아졌다. 이 시기 농림어업 비중이 감소하는 동안 제조업과 건설업이 큰 신장세를 보였다. 제조업은 경공업 발전에 이어 197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 정책을 펴면서 비중이 커졌다. 1973년에 정부는 “중화학 공업화 선언”을 하고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의 6개 산업을 중화학 공업의 주도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과 거제에 조선, 구미에 전자, 창원에 종합기계, 여수에 화학, 온산에 비철제련 등의 산업 기지가 건설됐다.⁹⁾ 제조업은 1960년에도 12.1%에 불과하다가 1979년에는 24.0%가 됐으며 건설업 비중은 1953년 2.2%에서 1979년 7.9%로 높아졌다.

1980년대 이후에도 농림어업 분야는 비중이 계속 줄어 1979년 20.7%이던 농림어업 비중은 2014년에 2.3%로 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산업 비중의 증가는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1953년 40.3%, 1979년까지도 44.4%로 비중에 큰 변화가 없던 서비스업은 8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해 2014년에는 59.4%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성장도 계속 이어져 1980년 24.0%에서 2014년에는 30.3%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분야의 세부 구성을 보면, 1953년에 서비스업 중 34.7%를 차지했던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0% 전후로 떨어졌으며 부동산임대업은 1953년 32.3%에서 2014년 13.4%로, 공공행정 및 국방은 20%에서 12.2%로 낮아졌다. 반면 사업서비스는 1953에서 2014년 사이 0.4%에서 12.4%로, 금융 보험업은 1.6%에서 9.4%로 크게 늘었다.

2012년 한국의 1, 2, 3차 산업 비중은 각각 2.5%, 38.1%, 59.5%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다.

9) 매일경제신문 1973년 5월 25일 “잘사는 내일への 출발, 중화학 6개 주도산업 선정의 의의”.



산업구성(1953-2014)

(단위: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농업	48.19	38.98	28.89	15.91	8.42	4.39	2.47	2.34
광업	1.15	2.41	1.62	1.37	0.73	0.29	0.19	0.19
제조업	7.77	12.08	18.82	24.28	27.26	28.98	30.72	30.29
전기, 가스 및 수도업	0.37	0.62	1.36	2.17	2.15	2.82	2.24	2.81
건설업	2.19	3.28	5.05	7.61	9.49	6.00	5.12	4.94
서비스업	40.33	42.64	44.25	48.66	51.93	57.51	59.26	59.42

서비스업 산업구성(1953-2014)

(단위: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도소매 및 음식숙박	34.75	26.31	35.91	30.17	27.39	21.91	19.21	18.90
운수 및 보관	3.82	8.88	12.85	13.25	8.82	7.54	6.56	6.24
금융 및 보험	1.61	3.36	4.77	11.37	9.91	9.85	10.56	9.39
부동산 및 임대	32.28	17.88	9.10	8.01	12.24	16.33	13.42	13.42
정보통신	0.43	2.27	3.22	4.29	5.77	7.77	6.69	6.47
사업서비스	0.43	1.21	2.44	3.78	6.66	8.85	11.49	12.40
공공행정 및 국방	19.96	23.13	16.08	14.46	11.81	10.69	11.62	12.21
교육서비스	2.74	10.09	8.23	8.64	8.65	8.25	9.39	9.2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2.15	2.37	1.53	1.89	3.84	4.32	6.47	7.10
문화 및 기타서비스	1.88	4.50	5.88	4.15	4.91	4.49	4.59	4.63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2) 산업생산

한국의 쌀 생산량은 1945년 185만MT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76년부터 1992년까지 대체로 500만MT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1988년 605만MT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생산량은 423만MT이었다. 쌀을 포함한 총 곡물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식량자급률은 1959년 100.4%, 1966년 100%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1994년에는 60% 밑으로 떨어졌고 2014년에는 50%가 채 되지 않았다.

자동차는 1955년에 최초로 7대가 생산됐다. 첫 자동차는 ‘시발(始發)’ 자동차로, 거의 수공업 방식으로 제조됐다. 시발자동차는 1962년부터 2년간 인기를 끌었던 ‘새나라’ 자동차에 밀려 시장에서 사라졌다.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의 자동차는 외국 모델을 들여와 생산하는 방식이었으나 1974년에 최초의 한국 고유 모델 ‘포니’가 개발되면서 한국은 세계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자동차 고유 모델을 가진 나라가 됐다. 자동차 생산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1988년 100만 대, 2002년 300만 대 생산을 돌파했고 2014년 생산량은 452만 대에 달했다. 이러한 생산 규모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에 해당한다.

철강 생산량은 조강 기준으로 1960년 5만MT에서 2010년 5,891만MT로 증가했다. 1973년 포항제철소가 준공되면서, 1972년에 60만MT이던 생산량이 1974년에는 237만MT으로 증가했고 1976년, 1978년, 1981년에 포항제철소 2기, 3기, 4기가, 1987년에는 광양 제철소가 준공되면서 1989년의 생산량은 2,000만MT을 넘어섰다. 2013년의 철강 생산량은 6,606만MT로,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6위이다.

선박 건조량은 1955년 2,000GT에 불과했고 1970년대 초에도 4만GT정도였다. 그러던데서 1974년 현대 울산 조선소, 1981년 대우 옥포 조선소가 준공되면서 1982년의 선박 건조량은 143만GT로 증가했다. 2013년의 선박 건조량은 2,122만 5000GT였으며, CGT 단위로는 1,003만 7,000CGT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반도체 생산액은 1997년 19.9조원에서 2014년 72조원으로 증가했고 세계 시장점유율은 동기간 6.8%에서 16.5%로 늘었다. 디스플레이 생산액은 1997년 4.2조원에서 2014년 43.5조원으로, 세계 시장점유율은 27.7%에서 44.2%로 증가했다.

산업 생산량

(단위 : 천MT, %, 대, 천GT, 조원)

	1945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쌀 생산량(천MT)	1,848.4	2,103.4	3,047	3,939	3,550	5,606	5,291	4,295	
식량자급률(%)			98.6	86.1	69.6	70.3	55.6	54.1	49.8
자동차 생산대수(대)			550	28,819	123,135	1,321,630	3,114,998	4,271,741	4,524,932
철강생산량(천MT)		0.4	50	504	8,558	23,124	43,107	58,914	71,542
선박 건조량(천GT)			4	39	655	3,573	11,499	26,397	
반도체 생산량(조원)							26	61.4	72
디스플레이 생산량(조원)							12.2	43	43.5

출처: 쌀생산량: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통계청(1998) <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50년 경제사회의 변화> p. 139.

식량자급률: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자동차생산량: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나라지표(www.index.go.kr), 통계청(1998) <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50년 경제사회의 변화> p. 166.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철강생산량: 한국철강협회,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선박건조량: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반도체생산액: 한국반도체산업협회, e나라지표(www.index.go.kr).

디스플레이생산액: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e나라지표 (www.inde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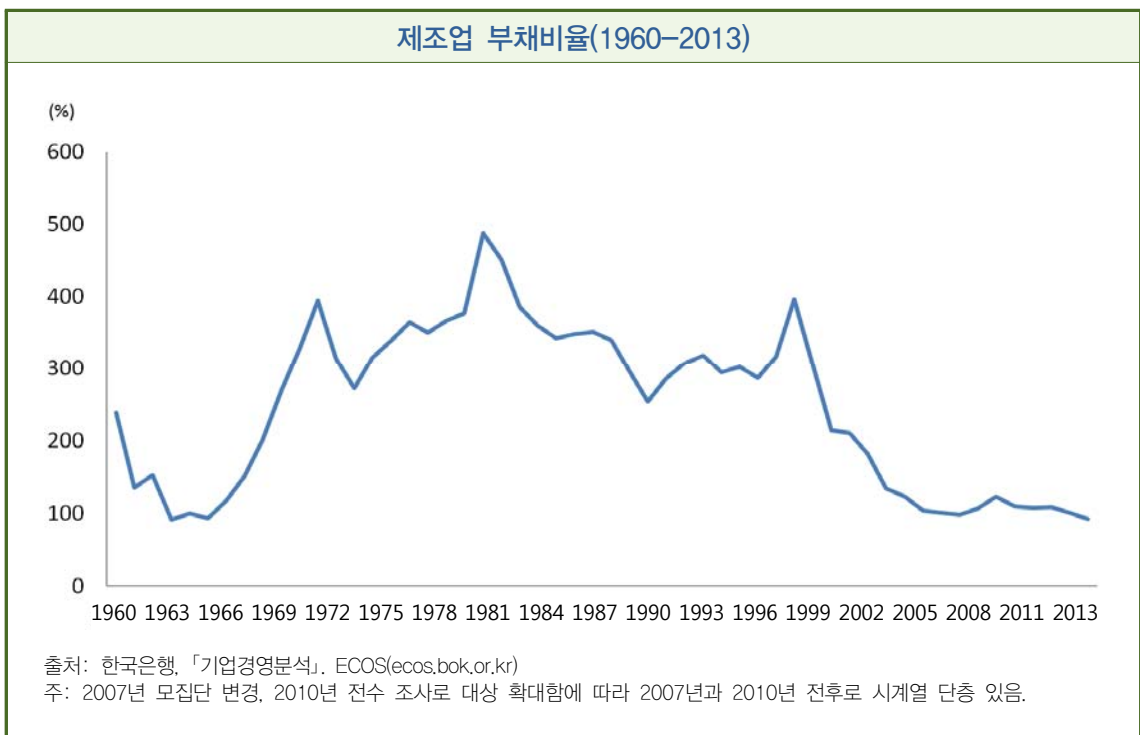
(3) 기업경영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는 동안 기업의 외형 성장도 급속히 이뤄졌다. 1970년대에는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이 연 30~4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로는 그보다 낮은 10% 전후 수준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다.

수익성 지표를 보면, 한국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960년대 10%대 이상, 1970년대 이후부터 외환위기 전인 1990년대 중후반까지 7% 전후의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외환위기 전까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특히 낮았다.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격차를 보인 요인 중 하나는 높은 금융비용부담이었다.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은 1990년대까지 5%대 이상으로 높았고 외환위기이던 1998년에는 8.95%에 달했다. 금융비용부담률이 높았던 것은 고도 성장기에 정부의 신용 할당, 정책 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 등으로 기업이 차입금 위주로 자본을 조달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부채비율도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200% 수준을 상회했으며, 1970년대에 300%를 넘어선 데 이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말에는 396.3%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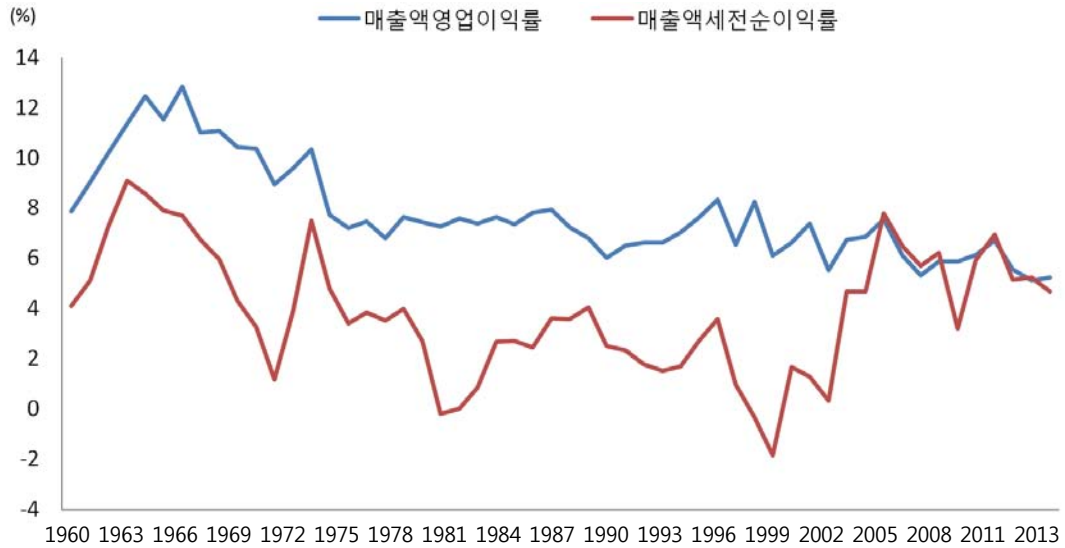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됐다. 건전성 지표를 보면, 1997년 말 396.3%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이듬해인 1998년 말에 303.1%으로 감소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말 210.6%, 2013년 92.93%로 떨어졌다. 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20.2%에 불과하다가 2013년 51.83%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3년 119.5%, 일본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2년 127.5% 수준이다.¹⁰⁾

외환위기이던 1998년에 8.95%에 달했던 금융비용부담률도 차차 줄어 2003년 이후 1%대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금융비용부담률은 1.02%였다. 또 2010년 이후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72%,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6.96%였으며 2013년에는 각각 5.24%와 4.68%였다.



1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3년, pp. 550,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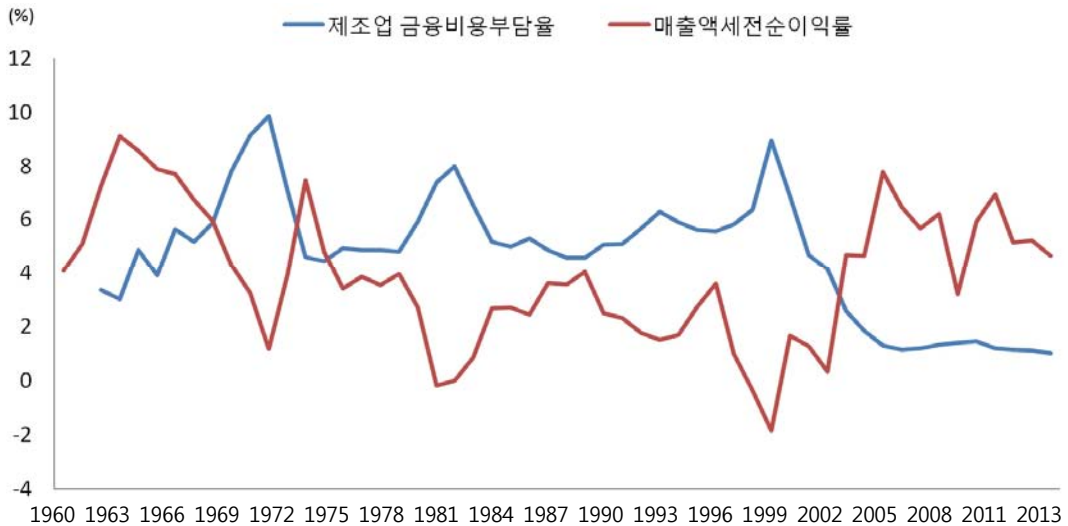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세전순이익률(1960-2013)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COS(ecos.bok.or.kr)

주: 2007년 모집단 변경, 2010년 전수 조사로 대상 확대함에 따라 2007년과 2010년 전후로 시계열 단층 있음.
2006년 이전은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아니라 매출액경상이익률임.

제조업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및 금융비용부담률(1960-2013)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COS(ecos.bok.or.kr)

주: 2007년 모집단 변경, 2010년 전수 조사로 대상 확대함에 따라 2007년과 2010년 전후로 시계열 단층 있음.
2006년 이전은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아니라 매출액경상이익률임.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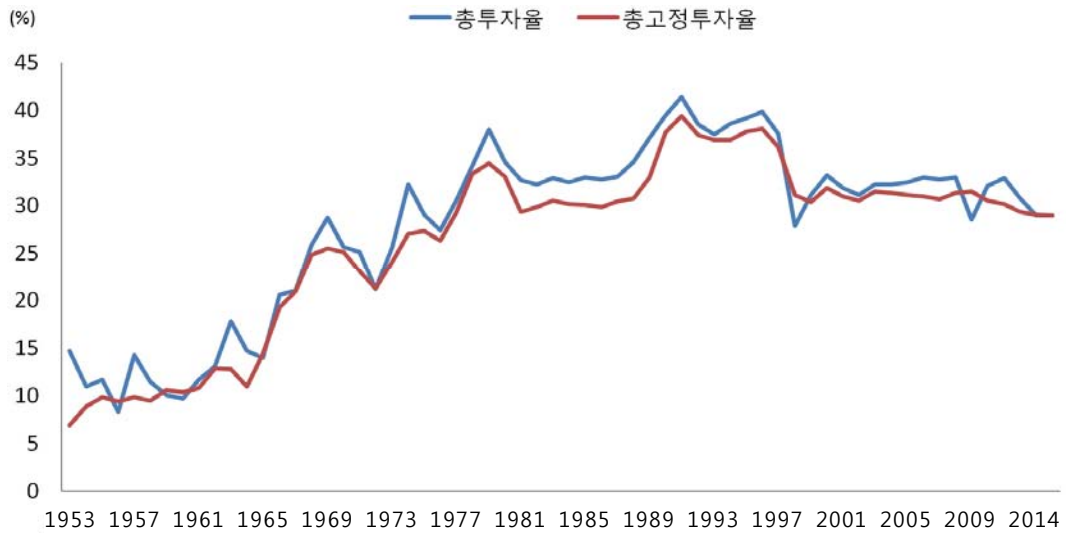
총고정자본형성은 일정 기간 동안 추가된 설비 투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이다. 총고정자본형성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총고정투자율은 1963년 6.9%에서 2014년 29%로 늘었다. 1959년에 10%선을 겨우 넘겼던 한국의 총고정투자율은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해 1990년대 중반 38%대까지 올라갔다가 199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1998년 이후 3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투자율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2013년 GDP 대비 한국의 총자본형성은 29.1%로, 미국 19.4%, 일본 21.1%, 영국 17.1%, 독일 19.0%보다 높았다. 한편 중국은 한국보다 높은 47.7%를 보였다.

연구개발비 투자(정부, 민간 모두 포함)는 1963년에 12억 원에 불과했지만 1977년 1,083억 원, 1985년 1조 1,552억 원, 1996년 10조 8,781억 원, 2013년 59조 3,009억 원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로도 연구개발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3년까지 1%가 채 안되던 데서 2012년부터는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2012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로 일본 3.4%, 미국 2.8%, 독일 2.9%, 영국 1.6%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수인 특허출원율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1999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8년과 2009년에 잠시 정체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허출원율은 1980년에 인구 100만 명당 33건에서 2000년 1549건으로 늘었으며, 2013년에는 3186건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도 13년 사이 두 배 가량 늘었다.

한편 연구개발투자비 1억 원당 특허출원수는 1970년대 초 15건 내외에서 1980년대 초에는 1건 내외, 1980년대 후반부터는 1건 미만으로 줄었다. 2005년 연구개발비 1억 원당 특허출원수는 0.67건이었으며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0.35건을 보였다. 이는 투자 대비 특허 출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투자율, 총고정투자율(195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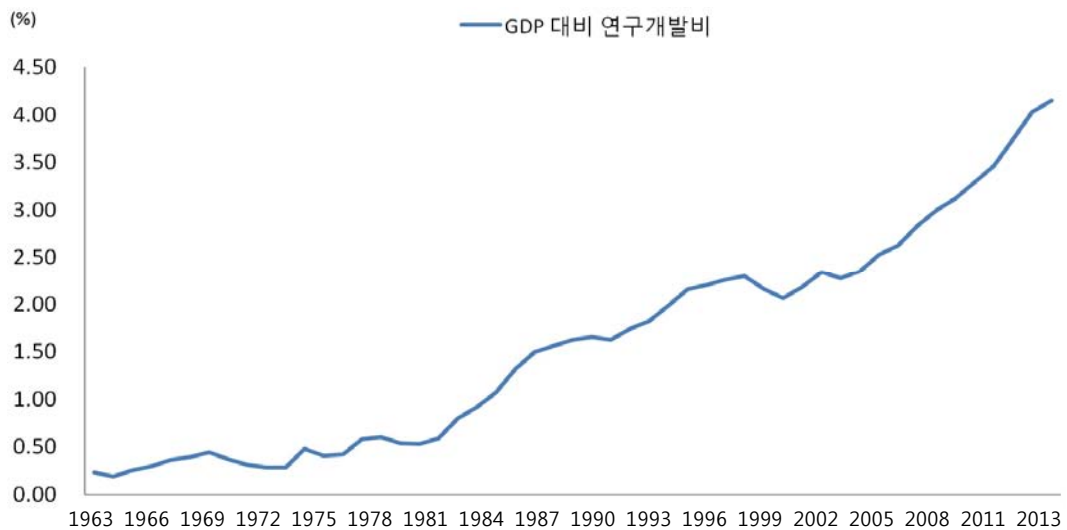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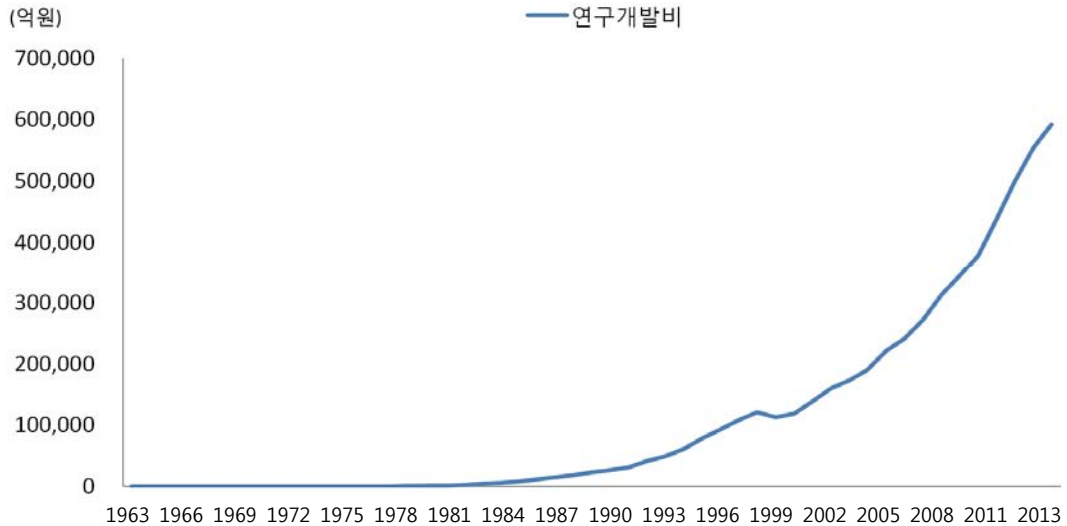


총투자율, 총고정투자율(1953-2014)

(단위: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국내총투자율	14.7	9.7	25.7	34.6	39.5	33.2	32.1	29.0
국내총고정투자율	6.9	10.4	25.2	33.1	37.7	31.9	30.6	29.0

연구개발비, GDP 대비 연구개발비(196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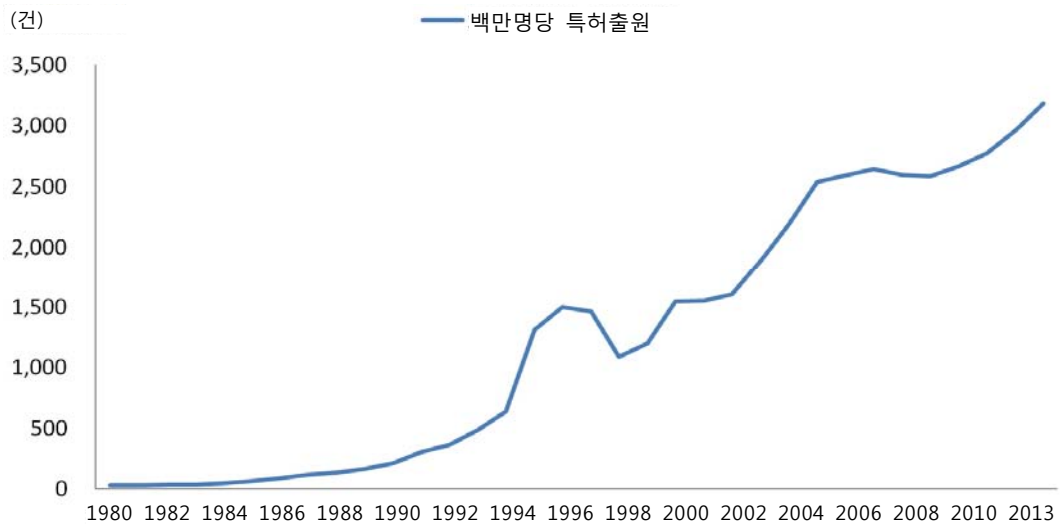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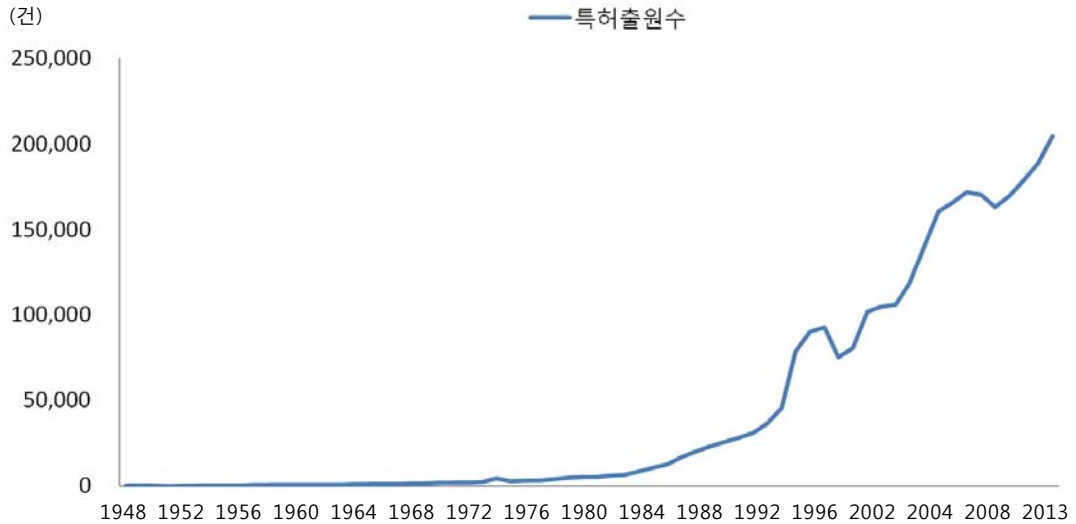
출처: 연구개발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통계(sts.ntis.go.kr).
GDP: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연구개발비, GDP 대비 연구개발비(1963-2013)

(단위: 억원, %)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연구개발비	12	105	2,117	32,105	138,485	438,548	593,009
GDP 대비 연구개발비	0.23	0.38	0.54	1.62	2.18	3.47	4.15

특허출원수, 100만 명 당 특허출원율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특허출원수, 100만 명 당 특허출원율

(단위: 건)

	1948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특허출원수	169	611	1,846	5,070	25,820	102,010	170,101	204,589
100만명 당 특허출원율				33	212	1,549	2,668	3,186

2012년 주요국 GDP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GDP 대비 연구개발비	2.8	1.6	3.4	2.9	4.0

출처: OECD,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제공.

2013년 주요국 GDP 대비 총자본형성

(단위: %)

국	가	2013년
중	국	47.68
독	일	18.99
영	국	17.06
일	본	21.13
한	국	29.10
미	국	19.35

출처: 세계은행, (data.worldbank.org/indicator/NE.GDI.TOTL.ZS) "Gross Capital Formation (% of GDP)"

2) 금융

(1) 금융규모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시장의 규모도 확장됐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은행, 적금,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하는 신용자산을 모두 합한 금융자산의 규모는 1962년 0.4조 원, GDP의 1.1배이던 데서 2014년에는 1경 3,587조 원, GDP의 9.1배로 증가했다. 금융부채의 규모도 1962년 0.4조 원에서 2014년 1경 3,582조 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 금융부채 중 가계부채(비영리단체 포함)는 1,295조 원이었다. 예금은행의 총예금은 1962년에서 2014년 사이 391억 원에서 1,080조 5,433억 원으로, 총대출은 같은 기간 432억 원에서 1,250조 1,033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장주식 시가총액("주식시장" 항목 참조)은 1963년 100억 원에 불과하던 데서 2014년에는 1,192조 원으로 증가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의 금융 거래는 은행 중심이었다. 1950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1954년과 1956년에는 산업은행과 농업은행이 설립됐으며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개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

행 등의 특수 은행이 설립됐다.¹¹⁾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금융기관은 종류와 수가 크게 확장됐다. 1972년 8월 3일에 사채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8.3 긴급조치가 시행된 뒤, 사금융의 제도금융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이 제정되면서 1970년대에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등장했다. 또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고 1974년 증권투자신탁 전문회사인 한국투자신탁이 설립됐다.¹²⁾ 1980년대 초에는 시중은행이 민영화되고 금융 산업 진입 제한이 완화돼 1982-1983년 사이 시중은행 2개, 투자금융회사 12개, 상호신용금고 58개 등이 새로 생겼다.¹³⁾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면서 1997년 말 33개이던 은행은 2005년 말에 19개로, 30개이던 종합금융회사는 2개로 줄어드는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행해졌다. 1997년 말 2,072개이던 전체 금융기관 수는 2010년 말 1,263개로 줄었다.¹⁴⁾

■ 금융자산규모(1962-2014)

(단위: 조원, 배, 십억원)

	1962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금융자산규모	0.4	7.2	113.7	770.4	3,592.5	10,328.5	13,587.1
GDP 대비 금융자산규모	1.1	2.6	2.9	3.9	5.7	8.2	9.1
예금은행 총예금(말잔)	39.1	789.7	12,421.9	84,054.1	404,660.9	873,890.6	1,080,543.3
예금은행 총대출금(말잔)	43.2	722.4	12,204.4	74,028.6	310,804.1	987,148.1	1,250,103.3

출처: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은행 <자금순환>, ECOS(ecos.bok.or.kr).

1962-1968년: 1953 SNA년, 1969-2001년: 1968 SNA, 2002-2010년: 1993 SNA, 2011-2014년: 2008 SNA 기준.

예금은행 총예금, 총대출금: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78

11)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p. 19.

12)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p. 20.

13)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p. 20, 21.

14)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p. 23, 26.

(2) 금리

한국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 금리는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 당국의 규제를 받았으나 1991년부터 4단계에 걸쳐 금리자유화가 이뤄지면서 금리의 가격 기능이 강화됐다.

예금은행의 최고 예금 금리는 금리현실화 조치가 시행된 1965-1967년의 26.4%였다. 예금은행의 최고 대출 금리는 1966-1967년의 26.0%였다. 1965년 9월 30일 단행된 금리현실화는 금융기관 예금 최고이자율을 연30%(월2.5%), 대출 최고이자율을 연 26%로 일거에 인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예금 금리는 1964년 15%에서 1965년 26.4%로, 대출 금리는 1964년 16%에서 1965년 23%, 1966년에는 26%로 올랐다. 이러한 금리현실화 조치로 1965-1967년에는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은 역금리 체제가 형성되었는데, 시중 자금을 제도 금융권으로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이 역마진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1972년 8.3 긴급조치 때 금리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예금 금리는 1971년 20.4%이던 데서 1972년 12%로 낮아졌고 대출 금리는 1971년 22%이던 데서 1972년 15.5%로 낮아졌다.

2014년 예금은행 예금 금리는 연 2.43%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금 금리는 1980년대 초 10% 밑으로 내려갔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13.3%까지 오른 후 점차 낮아져 2014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 역시 2014년에 연 4.26%로 1950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장기 금융시장 금리는 일반적으로 만기 1년 이상인 채권의 유통수익률을 말한다. 회사채 AA-등급 3년물, 국고채 3년물, 5년물 등의 금리가 주요 지표로 쓰인다. 2014년 회사채(AA- 등급, 3년물) 수익률도 연2.983%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5년물)도 2000년말 6.91%에서 2012년말 2.97%까지 하락했다. 다른 나라들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2012년 말 기준 1% 이하였다.

주요금리

(단위: %)

	1945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시중은행 예금금리	3.4	3.8	10	22.8	18.6	10	7.01	3.19	2.43
시중은행 대출금리	6.6	14.6	17.5	24	20	10.0~12.5	8.55	5.51	4.26
회사채AA-3년만기 금리					30.7	16.48	9.35	4.66	2.98

출처: 예금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79
 예금금리: 1949년 이전은 시중은행의 6개월 이상 정기예금금리(연말), 1950~1995년은 1년 이상 정기 예금금리(연말), 1996년 이후는 연중 은행 가중평균예금금리(저축성수신)
 대출금리: 1995년 이전은 시중은행의 1년 이내 일반 대출금리, 1996년 이후는 연중 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당좌대출 제외, 2001년 9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제외)
 회사채 AA-2년만기 금리: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79
 연중평균, 장외거래수익률(3년물)로서 1993년 6월까지의 거래채권의 거래량 가중평균수익률.

주요국 국고채 5년물 금리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재무부증권	4.98	4.35	4.69	3.44	1.55	2.68	2.01	0.83	0.72	1.74	1.65
일본 정부채	0.96	0.86	1.25	1.02	0.69	0.47	0.41	0.35	0.19	0.25	0.03
영국 정부채	5.17	4.17	5.06	4.41	2.43	2.80	2.20	1.05	0.86	1.86	1.16
독일 정부채	4.51	3.07	3.92	4.12	2.32	2.42	1.84	0.76	0.30	0.92	0.02

출처: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연말 기준.

(3) 주식시장

1956년 3월 3일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돼 조흥은행 등 12개 기업이 최초로 상장됐다. 그러나 거래는 미미했고 상장기업 수는 1970년까지도 50개가 채 되지 않았다. 시가총액 역시 1970년까지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1970년대에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고 기업 공개가 늘면서 상장기업 수는 1978년 356개로 늘었고 시가총액도 1978년 말 약 3조원으로 늘었다.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이 급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3저 호황을 탄 활황기였다. 1985년 9월부터 1989년 3월까지 3년 6개월 간 증시 사상 가장 긴 상승세가 이어졌고 1989년 4월 1일에는 주가 지수가 최초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1985년 342개이던 상장기업수도 1990년 말에는 669개가 되었으며 일반인 투자 역시 활발해졌다. 하지만 1989년 4월 3일 장중 최고점 1,015.75를 찍은 코스피 지수는 1990년 9월 18일에 559.98(장중 최저)로 내려앉았으며, 1994년 11월 9일에 다시 1,145.66(장중 최고)까지 올랐던 주가지

수는 외환위기인 1997년 12월 13일에 338.94(장중 최저), 1998년 6월 16일에는 277.37(장중 최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2014년 상장회사수는 773개, 시가총액은 1,192조 2,529억 원, 거래대금은 976조 원이었으며, 2014년말 주가지수는 1,915.59였다. 1992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 직접 주식투자가 허용되었으며 2014년 현재 외국인은 한국 증시 시가총액 중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1987년 4월 주식 장외시장이 개장됐으며 1996년 7월 1일 코스닥 시장으로 발전했다. 코스닥 지수는 외환위기, 벤처 거품, 세계 금융위기 등을 반영해 등락을 거듭했다. 1996년 말 1,204.70이었던 코스닥 지수는 1998년말 751.80으로 떨어졌다가 벤처 열풍이 불면서 2000년 3월 10일에는 최고치인 2,834.40(장중 최고점은 2925.50)을 기록했다. 그러나 벤처 거품이 사라지면서 2000년 말 525.80으로 떨어졌다. 2007년 말 700대로 올라갔던 코스닥 지수는 2008년 말 금융 위기로 330선으로 떨어졌다. 2014년 말 코스닥 지수는 543이었다.

1996년에 331개이던 코스닥 기업은 2014년 1,061개로 늘었으며, 2014년 코스닥 시가총액은 143조 880억 원, 거래대금은 482조 7,310억 원이었다.

코스피

(단위: 사, 천주, 백만원, 1980.1.4.=100)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상장회사 수	15	48	352	669	704	777	773
상장주식 수	32,000	159,000	3,875,642	4,796,327	19,638,668	33,706,255	36,142,637
시가총액	10,000	97,900	2,526,553	79,019,676	188,041,490	1,141,885,458	1,192,252,867
거래량		79,200	1,645,337	3,162,093	73,785,337	95,595,708	68,130,089
거래대금	26,000	42,900	1,134,019	53,454,517	627,132,939	1,410,561,813	975,977,127
주가지수(연말)			106.87	696.11	504.62	2,051.00	1,915.59

출처: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81, 통계청(1998)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p.130.

코스닥

(단위: 사, 십억원, 1996.7.1.=1000)

	1996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상장회사 수	331	604	918	1,029	1,031	1,005	1,009	1,061
시가총액	7,606	29,016	70,898	97,972	105,994	109,122	119,293	143,088
거래대금	535	578,490	446,378	483,091	558,007	528,028	450,369	482,731
코스닥 지수(연말)	1,204.70	525.80	701.79	510.69	500.18	496.32	499.99	542.97

출처: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ECOS(ecos.bok.or.kr).